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1), 61~76, 2022. 2. https://doi.org/10.17279/jkagee.2022.30.1.61

고등학교 지리과 교육과정 편제의 변천과 과목 구성 방향 탐색

강창숙*

A Study on Changes of Classification of Subjects and a Direction for Organizing Subjects in the High School Geography Curriculum

Chang-Sook Kang*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지리과 과목 편제의 변천 양상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과목 구성 방향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요목기부터 5차 교육과정까지 지리는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다. 7차 시기부터 선택과목으로 이수되었으며, 최근에는 전문계 과목이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이수되고 있다. 둘째, 사회과의 교과 편제는 영역별 과목의 성격이나 내용체계 특성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시기별로 편의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과 3개 영역에서는 시기별로 과목과 과목명 구성을 달리하는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지리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로 계속되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학문적 지식론의 관점에서, 지리학 연구 분야를 바탕으로 다양한 과목을 구성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계 보통교과와 전문계 전문교과를 포괄하는 지리 과목 구성 방향과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고등학교 지리과 교육과정, 교과 편제, 보통·전문교과, 필수·선택과목, 강력한 학문적 지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flect on the trends of changes of classification of subjects in the high school geography curriculum and explore a direction for organizing geography subjec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geography was organized into two types of subjects—compulsory and elective subjects—during the period from the syllabus period to the 5th curriculum. Beginning in the 7th curriculum, geography is an elective subject, while subjects of special course are replaced by elective subjects in general high schools. Second, subjects of social studies were expediently organized for each curriculum period regardless of the nature of subjects in different areas or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ntent system. In the three areas of social studies, there were changes in the organization of subjects and the subject names in each period. In contrast, the organization of geography into two subjects—Korean Geography and World Geography—has been fixed. Finally,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ful disciplinary knowledge theory, the case of China's geography curriculum, which constitutes various subjects based on the research field of geography, was examined. And based on this, a direction and a plan (draft) for organizing geography subjects encompassing general and special course subjects were presented.

Key words: high school geography curriculum, classification of subjects, general and special course subjects, compulsory and elective subjects, powerful disciplinary knowledge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aia2004@cbnu.ac.kr

www.kci.go.kr

I. 서 론

교수요목기 이후 고등학교에서 지리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과' 사회과의 과목으로 편제되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교과 편제와 과목의 이수 구분은 개정 시기마다 변화했고, 그 변화는 고등학교 지리 과목 구성과 교실 수업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사회과 편제 및 이수 구분의 변화와 함께 고등학교 교과의 설정 주체 및 유형도 다원화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에 의하면(교육부, 2021a),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그리고 '고등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교과'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전문계 고등학교는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학교의 장이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교과'와 그에 따른 과목 편제는 다양하게 확대될 것이다.[1)]

대체로 고등학교 교과 및 교육과정은 일반계 '보통 교과'와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로 구분하여 제시되지만, 최근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보통 교과' 외에 '전문 교과'를 대체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표 2, 표 5). 2015 개정 교육과정 실행에서 전문교과 Ⅰ(국제 계열)의 11개 과목이 '여행지리' 등 일반계 사회과 진로 선택과목을 대체하여 이수되고 있다(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팀, 2021, 104 참조).

그동안 교과 및 과목 편제에 대한 지리교육계의 관심은 일반계 고등학교 '보통 교과'에 주로 집중되었고, 고등학교 지리 과목에 대한 지리교육계와 대중의 인식은 한국지리, 세계지리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지리교육계 내부의 주된 관심은 내용 선정과 내용체계 조직방식에 치중되었고, 새로운 과목 구성에 대한 형식적인 논의는 '여행지리'에 대한 것이 거의 유일한 사례일 정도로 부진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의 '일반 선택과목'은 검정교과서로 발행되었지만 '진로 선택과목'인 '여행지리'는 시·도 교육감의 인정교과서로 발행되었다. 고등학교에서 학습자의 다양한 교과목 선택을 충족하는 교육환경과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과목 개설의 자율성과 함께 학교 단위 자유발행 교과서에 대한 요구도 확대될 것이다.[2)] 앞으로 수시로 계속될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한 고등학교 지리 과목 구성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지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발행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교수요목기 이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이른바 사회과는 교과목 편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개정의 결과는 대부분 지리과의 희생으로 이어졌으며, 후속 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정적 문화유산'이 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과정 개정이 교육 당국에 의해 외부에서 강제되는 과정으로 전개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의 실수나 오류에 대한 내부의 반성도 부족했다.

이에 교육과정 개정 시기별 고시 문서를 근거로 고등학교 지리과 편제와 과목 이수 구분의 변천 양상을 반성적으로 고찰해보고, 중국의 2017년 개정 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을 사례로 강력한 학문적 지식론의 관점에서 미래 지리과 과목 구성 방향을 탐색해 보았다.

Ⅱ. 고등학교 지리과 편제와 이수 구분의 변천

1. 교수요목기에서 5차 교육과정까지 사회과 편제의 변천

1946년 9월 미군정청에 의해 우리나라에 사회(생활)과가 도입된 이래,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사회과의 성격은 변화했다. 사회과는 학문체계와 성격이 다른 지리, 역사, 일반사회, 도덕의 4영역으로 구성되었기에, 분과와 통합의 내부 갈등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사회과는 이른바 '국가·사회적 요구'라는 명목을 앞세운 외부 정치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이는 고등학교 사회과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에 반영되었다(강창숙, 2021b, 158).

교육과정 시기별 변화와 영향을 가장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교과 편제이고, 시기별 교과 편제는 사회과 성격 변화를 잘 드러낸다. 사회과 편제와 이수 구분의 구조는 이른바 '공통 과목'을 편성한 6차 교육과정부터 전환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반계 보통교과 편제와 이수 구분을 대상으로 6차 교육과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사회과 교과와 영역별 과목 편제의

www.kci.go.kr

변화를 정리하면 표 1, 2와 같다. 시기별로 영역별 과목명이 변경되었지만, 표 1에서는 도덕, 역사, 지리, 일반사회로 구분하였다.

광복 직후 긴급조치기에 필수로 편제되었던 공민 및 지리·역사 교과는 교수요목기에 사회생활과로 통합되었고, 필수(역사, 지리, 공민)와 선택과목(특수 경제지리)으로 이수되었다. 1차 교과과정기에 '사회'로 교과명이 변경되었고, 공민은 도덕과 일반사회로 분과되었으며, 역사는 국사와 세계사 과목으로 분리되었지만, 지리는 1과목으로 통합되었다.

2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는 7개 과목(4개 영역)으로 편성되었고 도덕이 국민윤리로 과목명을 변경하였다. 총론의 '교과 과목 단위 시간 배당 기준표'에서 교과별 과목과 과목별 단위 수만 제시하였고, 이수 구분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계열의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이수'할 과목으로 일반사회, 국민윤리, 국사, 세계사, 지리I의 5개 과목을 제시하였다. 정치·경제와 지리II는 과정별(인문, 자연, 직업, 예능 과정)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으로 제시하였기에, 실제로 사회과 7개 과목은 모두 필수과목으로 이수되었다.

3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 7개 과목은 필수교과(국민윤리, 국사), 필수 선택교과(택 2), 인문·자연·직업과정 중에서 인문과정 선택교과(나머지 3과목)로 편제되었다.

4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이 '보통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되었다. 보통 교과에서 사회과 7개 과목은 공통 필수(국민윤리, 국사, 사회I·II)와 인문·사회과정과 자연 과정 중에서 인문·사회과정 선택(지리I·II, 세계사)으로 편제되었다. 전문 교과(일반고교 직업과정,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교)에서는 선택과목(지리I·II, 세계사 중 택 1)으로 편제되었다.

5차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는 7개 과목으로 편제되었다. 보통 교과에서 공통 필수(국민윤리, 국사, 한국지리, 정치·경제), 인문·사회과정 선택과목(세계사, 세계지리, 사회·문화), 자연과정 선택과목(세계사)으로 편제되었다. 전문 교과(실업계, 기타계 및 일반계 직업과정)에서는 '사회·문화'만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이 시기에 지

표 1. 고등학교 사회과 및 영역별 과목 편제의 변화 1

교육과정 (공포, 고시)	사회과 및 영역별 과목 편제				기타
	도덕	역사	지리	일반사회	
긴급조치기 (1945)	**공민*** (도덕, 일반사회)	**지리·역사***		-	· 중등학교 (필수) 교과로 편제
교수요목기 (1946)	**사회생활**				· 필수과목(역사, 지리, 공민), 선택과목(특수 경제지리)
	-	역사*	지리*, 특수 경제지리	공민*	
제1차 (1955)	**사회**				· 필수 교과(일반사회 도덕, 국사), 선택 교과(세계사, 지리)
	도덕*	국사*, 세계사	지리	일반사회*	
제2차 (1963)	**사회**				· 필수교과(일반사회, 국민윤리, 국사, 세계사, 지리 I), 과정별 필수교과(정치·경제, 지리 II)
	국민윤리*	국사*, 세계사*	지리 I*, 지리 II*	일반사회*, 정치·경제*	
제3차 (1974)	**국민윤리**	**국사**	**사회**		· 필수(국민윤리, 국사), 필수 선택(2과목), 인문과정 선택과목(3과목)
	국민윤리*	국사*	세계사	국토지리, 인문지리	정치·경제, 사회·문화
제4차 (1981)	**국민윤리**	**국사**	**사회**		· 공통 필수(국민윤리, 국사, 사회 I·II), 과정별 선택과목(지리 I·II, 세계사)
	국민윤리*	국사*	세계사	지리 I, 지리 II	사회 I*, 사회 II*
제5차 (1988)	**국민윤리**	**국사**	**사회**		· 공통 필수(국민윤리, 국사, 한국지리, 정치·경제), 과정별 선택과목(세계사, 세계지리, 사회·문화)
	국민윤리*	국사*	세계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정치·경제*, 사회·문화

출처: 강창숙, 2021b, 159. 일부 수정. *는 필수과목, 굵은 글씨 및 밑줄은 연구자 표기.

www.kci.go.kr

리 과목은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로 과목명이 변경, 정착되었다.

2. 6차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사회과 편제의 변천

5차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이수 과정은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되었지만, 6차에서는 공통 필수, 과정별 필수, 과정별 선택의 과정별 이수 과정으로 3분 되었고,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도 '영역'과 '교과(군)' 등 설정 근거나 논리도 분명치 못한 이수 구분이 복잡하게 전개되었다.[3)]

6차 시기 사회과 공통 필수과목으로 '공통 사회(한국지리, 일반사회로 구성)' 과목을 편제함에 따라 교육과정에서 '한국지리'가 명시되지 않는 기변이 발생했다. 이는 당초 '현대 사회와 시민'을 새로운 과목으로 편제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기변이었다.[4)] 동시에 과정별 필수 과목에 일반사회(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목의 과도한 편제와 사회과 밖의 교양 선택 교과에 '생활 경제' 과목을 설치하는 불균형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과 선택

표 2. 고등학교 사회과 및 영역별 과목 편제의 변화 2

시기	이수 구분			
6차 (1992)	교과	공통 필수과목	과정별 필수과목	과정별 선택과목
	윤리	윤리(6)	-	과정별 필수과목에서 제외된 교과목 중에서 선택(8)
	5. 사회	공통사회(8), 국사(6)	정치(4), 경제(4), 사회·문화(4), 세계사(6), 세계지리(6)	
	13. 교양 선택	-	-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종교, 환경과학, **기타 중에서 선택(4)**
	① 보통 교육을 주로 하는 일반고등학교는 2학년부터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직업과정 및 기타 필요한 과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직업과정으로의 변경은 3학년에서도 가능하다.			
7차 (1997)	교과	국민공통 기본교과	선택과목	
			일반 선택과목	심화 선택과목
	도덕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사회	사회, 국사	인간 사회와 환경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양	-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 경제**, 종교, 생태와 환경, 진로와 직업, 기타	-
	(3) * 표시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심화 선택과목은 【표 3】의 체육, 예술에 관한 **전문 교과의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4) 교양 교과에서 심화 선택 과목이 필요한 경우 【표 3】의 과목 중에서 선택하거나, **시·도 운영 지침에 의거,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도 있다**.			
2007 개정	교과	선택과목		
	도덕	현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한국 문화사, 세계 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양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제**, 안전과 건강, 환경, 진로와 직업		
2009 개정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사회,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생활·교양	교양	생활과 철학, 생활과 논리, 생활과 심리, 생활과 교육, 생활과 종교, **생활 경제**, 안전과 건강,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③ 위 표에 제시된 과목 이외에 **전문 교과의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www.kci.go.kr

표 3. '표 2'의 계속

	교과 영역	교과(군)	기본	일반	심화
2012 개정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세계 문제, 비교 문화, 사회과학 방법론, 한국의 사회와 문화,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과제 연구(11개)
	생활·교양	교양	-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과 녹색성장, **실용 경제**, 논술	-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2015 개정	기초	(국·수·영) 한국사	한국사	-	-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 사회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생활·교양	교양	-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

				선택과목		
2022 개정(시안)	-	교과(군)	공통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ncic.re.kr/2021.8.15.). 굵은 글씨 및 밑줄은 연구자 표기

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되었고, 고등학교 2·3학년은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편제되었다. 7차에서도 사회과 3개 영역의 과목 편성은 각각 3개 과목으로 균형적으로 편성되었지만, 일반사회의 4개 과목 편제와 사회과 밖의 '생활 경제' 과목 편제는 계속되었다. 이수 과정이 '선택과목'으로 일원화된 2007 개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계속되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도입된 7차 교육과정에서, 일부 교과는 전문 교과에서 심화 선택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교양 교과에서는 '시·도 운영 지침에 의거,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이 중점이었다. 명목상 제시된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은 사회 환경의 변화, 국가·사회적 요구, 사회과 쟁점 및 문제점 개선 등 관습적이고 도구적으로 인용되던 내용이 제시되었다. 개정의 중점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면서 사회과(역사 포함) 교육의 적정화를 모색하는 것이었고, 과목 수를 8개로 줄이면서 각 교과의 교육내용을 위계적으로 또는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논리적 근거도 없는 '숫자 8'이 통폐합 기준으로 제시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7-10).

이에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편제된 10개 선택과목 중에서 '법과 사회'와 '정치'는 '법과 정치'로 통합, 존속시키고, '경제지리'를 폐지하여 8개 과목으로 편제하였다. 2009 개정에서 사회과는 탐구영역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으로 통합되었다. '사회'라는 공통 과목을 포함한 12개 과목이 모두 '(선택)과목'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보통 교과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에서 "③ 전문 교과의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2012 개정은 2009년 12월부터 총론 개정으로 시작되었고, 도덕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2012년에만 공식적으로 3회(3월, 7월, 12월) 개정되었으며, 2013년 12월에

www.kci.go.kr

도 개정되었다.[5] 문명국가의 교육과정이 누군가(소수 관료 집단의 사적 목적 실현으로 추정)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1년에도 몇 번씩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개정, 고시되는 야만적인 시기였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3호(2012. 3. 21)의 총론 개정은 보통 교과 일반과목에 '사회'를, 교양 교과군의 일반과목에 '실용 경제'를 신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를 위해 총론(별책 1),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4), 사회과 교육과정(별책 19), 고등학교 교양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교과에서 '국제계열' 교과는 해체 혹은 삭제되었고, 외국어 과목들은 '생활ㆍ교양' 영역의 '제2외국어' 교과로 편제되었으며, '국제 정치' 등의 11개 과목은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의 심화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다.[6] 이러한 개정은 사회과 학계나 '사회과 교육과정심의회' 등 그 어떤 형식적, 공식적 절차나 논의 없이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2015 개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공통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었고, 사회과 기본과목들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다. 4개 영역 모두 3개 과목을 편성하는 균형을 도모하고 있지만, 일반사회 영역만 4개 과목을 편성하고, 교양 교과에 '실용 경제'를 편성하는 현상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2012 개정에서 '심화 선택'으로 편제되었던 11개 과목은 '전문 교과I'의 '국제계열' 과목으로 되돌아갔다(표 5). 2015 개정 고등학교 이수 구분은 교과 영역-교과(군)-공통과목-선택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의 중층적 계열로 혼란하게 구성되었고, 문·이과 통합을 표방하면서 '공통과목'이라는 자기모순적인 명칭으로 이수 과정을 편제하였다.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2018년 고등학교 1학년 적용을 시작으로, 2020년 3학년에 처음 적용되었으며, 연계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1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교육과정이다. 이에 대한 현장 적용 및 실태 조사나 검토, 반성도 없이 당국은 교육과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와 학생은 정권의 '국정과제'를 실험하는 일시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비교육적 교육과정 개정은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7]

2022년 개정이 예고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학점제 정책을 2022년에 부분 도입하고,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본격 시행하기 위해서 개정이 추진된다고 한다. 이에 교육과정은 4개로 편성된(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교과 영역'을 폐지하고, 보통 교과 교과목은 교과(군)-공통 과목-선택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구성(안)을 제시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6-11; 교육부, 2021b, 47).

이처럼 교육과정 개정 시기별로 고등학교 이수 구분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체계로 구성되거나,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적절치 않은 용어로 이수 과정을 복잡하게 구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혼란을 주는 요인으로 작동해 왔다. 교육과정 시기별로 개정된 이수 구분에 대한 설명은 교육과정 개정의 대외 명분과 정책을 담아내는 일시적인 조작적 정의로 이루어졌기에 일관성을 구성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수시 개정이 처음 시작된 2007 개정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31).

>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과목은 고2, 3학년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계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교양을 증진하고 실생활과의 연관성을 추구하는 과목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교육과정-선택 중심 교육과정(일반 선택-심화 선택)의 위계적 구성에서 교과 나름의 내용체계를 바탕으로 '심화 선택'으로 구분되었던 지리 과목들은, 2007 개정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주는 성격의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다. 2012 개정에서는 '일반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고, 교과 내용체계 심화와는 무관한 성격의 과목들이 '심화 선택과목'으로 추가되었다. 이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성격이나 내용체계가 적합성이나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교수요목기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사회과 편제와 이수 구분에서 나타난 변화를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과 편제는 사회생활과(교수요목기) → 사회과(1~2차) → 국민윤리·국사·사회과(3차~5차) → 윤리·사회(6차) → 도덕·사회(7차~2007 개정) →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2009 개정~2015 개정)으로 변화하였다.

www.kci.go.kr

명목상 교과명은 '지리'가 누락된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이라는 기이한 명칭으로 수렴되었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가 위계적으로 교과보다 상위 수준인 기초영역 교과로 편제됨에 따라 실상 '한국사·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군'으로 구성되었다. '사회과'는 개정 시기별로 교과의 성격이 변하였고, 하나의 교과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는 교과임을 시기별 교육과정에서 실증하고 있다.

둘째, 교수요목기부터 사회과 과목의 이수 구분은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다. 6차 시기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택 교육과정을 표방했지만, 필수과목을 편성했다. 즉, 공통 필수·과정별 필수(6차) → 국민 공통 기본교과(7차) → 기본 과목(2012 개정) → 공통 과목(2015 개정) 등으로 필수과목을 편성해왔다. 이수 구분 명칭의 의미가 혼란을 주었고, 2015 개정에서는 '최소 이수 단위 수와 필수 이수 단위 수 규정' 등으로 혼란을 가중하였다.

셋째, 필수 혹은 기본과목으로 이수되어야 할 지리과목들은 심화 선택(7차) → 선택(2007 개정~2009 개정) → 일반 선택(2012 개정) → 일반, 진로 선택(2015 개정) 등 편의적으로 편제되었다. 2015 개정 사회과 진로 선택과목 3개 중에서 과목의 성격이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여행지리'만 학생들의 진로와 요구를 충실하게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 외에 전문계 전문 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201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교과가 사회과의 심화 선택과목으로 이동, 편성되었다. 나아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들 과목(전문 교과I의 국제계열)은 사회과의 진로 선택과목으로 대체, 이수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교과 편제의 이수 구분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차 시기부터 4개 영역별 과목 구성과 과목명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도덕과는 윤리 → 도덕, 시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 현대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 도덕,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고전과 윤리로 변화하였다. 역사과는 국사, 세계사 → 국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 한국 문화사, 세계 역사의 이해, 동아시아사 →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로 변화하였다. 일반사회는 뿌리가 다른 배경 학문이라 주장하는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와 일반사회의 5개 분야를 시기별로 분산, 조합하는 형식으로 변화하였고, 교양 교과에도 과목을 편성하였다.

반면에 지리과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 한국지리, 세계지리 →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로 변화하였다. 경제지리와 여행지리를 제외하면 제5차 시기부터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로 과목 구성과 과목명이 고정된 상황이다.

이처럼 사회과의 교과 편제나 이수 구분은 과목의 성격이나 내용체계 특성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따라 시기별로 편의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영역에서는 시기별로 과목과 과목명 구성을 달리하는 변화를 도모하였다. 따라서 지리과 과목 구성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의 변화와 상관없이 배경 학문인 지리학의 논리적 구조와 연구 분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과목 구성의 내재적 논리를 기본 입장으로 정립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상시에도 계속해야 한다.

지리과의 내재적 논리에 의거한 교육과정과 과목 구성안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개정을 위한 개정, 정치적 졸속 개정, 총론의 획일적 요구에 종속되는 개정, 최소한의 시간도 확보되지 않은 개정 시한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학생의 지리학습을 위한 보다 온전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

Ⅲ. 일반계 '보통 교과' 밖 지리 과목의 문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차 교육과정기 전문 교과에서 '국제에 관한 교과'로 처음 편제된 후,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전문 교과와 보통 교과를 넘나들며 편의적으로 편제되는 떠돌이 과목군이 있으며, 이는 지리과 및 사회과 교실 수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전문 교과의 '국제에 관한 교과'로 편성된 14개 과목은 표 4와 같다(교육부, 1997a).

이들 과목군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전문 교과I의 국제계열 과목으로 편제되었지만,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통 교과 선택과목으로 '대체하여

www.kci.go.kr

편성·운영할 수 있는' 과목으로 명시되었고(교육부, 2015a), 학교에서는 일반계 보통 교과 사회과의 진로 선택과목으로 대체, 이수되고 있다(표 5).

지리교육 논의에서 중학교 및 일반계 고등학교 보통 교과에 대한 관심에 비해,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다

표 4. 제7차 교육과정 '(2) 전문 교과【표 3】'의 일부

교과	과목	기준 학과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에 관한 교과	생략	생략
국제에 관한 교과	영어 강독, 독일어 강독, 프랑스어 강독, 스페인어 강독, 중국어 강독, 일본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아랍어 강독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문제, 비교문화, 정보과학, 국제법, 지역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의 현대사회, 한국어, 과제연구, 예능실습, 기타**	-

(1)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표 3】에서 필요한 전문 과목을 82단위 이상 이수한다.
(2)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농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 외국어 계열 : 각 학과 해당 외국어 과목Ⅰ 및 청해
  ㉰ 국제 계열 : 영어 강독, 지역 이해, 한국의 전통문화
(3) 전문 교과의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8단위 이하로 배당한다.
(4)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에 관한 교과의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 굵은 글씨 및 밑줄은 연구자 표기

표 5. 2015 개정 고등학교 'Ⅱ.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의 일부

4. 고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2) 단위 배당 기준
3) 보통 교과
4) 전문 교과
가) 전문 교과Ⅰ

교과(군)	과목
과학 계열	생략
체육 계열	생략
예술 계열	생략
국제 계열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법, 지역 이해, 한국 사회의 이해, 비교 문화, 세계 문제와 미래,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현대 세계의 변화, 사회 탐구 방법, 사회과제 연구**
① 전문 교과Ⅰ, Ⅱ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은 **모든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나) 전문 교과Ⅱ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
2)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
나) 학교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3)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
나) 보통 교과의 선택과목은 이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전문 교과Ⅰ의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굵은 글씨 및 밑줄은 연구자 표기

www.kci.go.kr

(안종욱, 2012; 김대훈, 2018). 최근 김대훈(2018)은 국제계열 교육과정에서 '지역이해' 과목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계열 교육과정에서 대표적인 지리 과목인 '지역이해' 과목에 대한 탐구를 통해 국제계열 교육과정에 대한 지리교육계의 관심을 환기하고, 지역이해에 대한 논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이해 과목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6. 국제계열의 '지역이해' 과목 '목표'의 일부

교육과정	편제 (과목 수)	(총괄) 목표	
		국제에 관한 교과	지역이해
7차	· 국제계열 고등학교 · 전문 교과 · 국제에 관한 교과(14)	· 장차 **국제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 활동할 학생들에게 국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언어 구사 능력을 기르고, 국제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세계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여러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과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우리 문화와 현실의 역사성과 독창성을 인식하고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 교통·통신의 발달로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세계 각 지역의 실체와 변화 양상을 심층적·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007 개정	· 국제계열 고등학교 · 전문 교과 · 국제에 관한 교과(17)	· 세계를 무대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함양하고, 세계 지도자와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우리의 문화와 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고,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 **각 문명별, 나라별 또는 각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동시에 타 지역과 비교하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며,** 지역의 실체와 변화 양상을 심층적,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009 개정	· 보통교과 · 제2외국어	· 전문 교과: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계열 · 국제에 관한 교과는 보통 교과 '제2외국어' 과목으로 편제	
2012 개정	· 보통 교과 · 사회(역사 포함)/도덕 교과군 · 심화 선택(11)	사회과 심화 선택으로 편제	· **지역의 이해는 다양한 지리적 규모의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다양한 지리적 규모는 주변의 지역적·국가적·세계적 규모에서 수행되는 지역의 역할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교하는 능력을 키운다. 동시에 타 지역의 이해를 통해 지리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역의 실체와 변화 양상을 심층적·체계적으로 파악하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015 개정	· 국제계열 고등학교 · 전문 교과 I · 국제계열 과목(11)	· 국제 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지역 등의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국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국제 사회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세계 공동체에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세계,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 전문 인재로서의 자질을 기른다.	· **'지역 이해는 다양한 지리적 규모의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지역을 바라봄으로써 주변의 지역적·국가적·세계적 규모에서 수행되는 지역의 역할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교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 동시에 타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리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지역의 실체와 변화 양상을 심층적·체계적으로 파악하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 )은 외국어를 제외한 과목의 수, 굵은 글씨 및 밑줄은 연구자 표기

www.kci.go.kr

7차 이후부터 편의적으로 떠도는 과목군의 일부는 지리 과목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들 중에서 '지역이해'는 누구나 직관적으로 지리로 인식할 수 있는 과목이다. 당시 이들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담당했던 연구자들의 면면을 보면 지리학계 연구자(최석진, 노희방)도 있다(김정호 외 8인, 1997). 하지만 교과서는 일반사회계 전공자들이 집필, 발행하고 있다(정문성 외 5인, 2014; 정문성 외 4인, 2018).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시기별로 이른바 '국제에 관한 교과'의 성격이나 목적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 과목의 명시적인 정체성과 숨어있는 혹은 암묵적으로 의도하는 정체성을 추정할 수 있다. 교육과정 시기별 '국제에 관한 교과'와 '지역이해' 과목의 목표에서 제시된 일부(총괄 목표)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김대훈, 2018; 교육부, 1997c;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11; 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부, 2015a; 교육부, 2015b).

'지역이해' 과목은 7차 교육과정에서 전문계 고등학교 '국제에 관한 교과'의 필수과목으로 편성되었으며, 과목의 '성격'에서 종합학문인 지리를 역사, 문화 등의 인문과학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지역이해' 과목은 '예술 영역, 인문과학 영역, 사회과학 영역과 통합하여 간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과목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세계사 과목 등과 관련이 많은' 과목으로 설명되었을 뿐 지리(과목)로 명시되지 않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지역이해' 과목의 내용체계 영역(지역의 개념과 지역조사 방법,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지역이해, 규모에 따른 지역이해, 지역갈등과 공존의 모색)과 핵심 개념 등은 보다 지리적인 것으로 구성되었다(교육부, 2015b, 33). 하지만 '지역이해'는 '국제에 관한 교과'로 편성된 것이며, 이 교과의 기본 특성이자 정체성은 '국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를 전제한 것이다. 처음부터 '지리'는 포함되지도, 명시되지도 않았다. 2015 개정에서 '지역'이 포함되었지만, 이 또한 '지리' 과목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제에 관한 교과'의 목표에서 제시되는 진술문의 이면에는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고 추정된다. 그것은 교수요목기 '사회생활과' 편성 이래, '통합'을 앞세우면서 '지리'를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등으로 나열되는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종속시키려는 의도를 '국제에 관한 교과'에서 반복하는 것이다. '지역이해'는 온전한 지리 과목으로 보기 어렵다. 때문에 온전한 지리 과목으로 성격과 내용체계를 갖추어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 나아가 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을 일반계 '보통 교과' 중심에서 전문계 '전문 교과'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로 확대하고,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지리과 과목 구성 방향 등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지리교육과정 및 학교 지리에 대해 전체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면 인식의 협소함을 유발할 수 있고, 관련 사태에 대한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김대훈, 2018).

IV. 중국의 다양한 지리 과목 구성 사례 탐색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이하 중국 교육부)는 2017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중국의 교육과정은 오랫동안 구소련의 영향을 받은 '교학대강(教學大綱)'에서 2000년대 초반 미국의 'standards' 영향을 받아 '과정표준(课程标准)'으로 전환하였고, 실험과정을 거친 『과정표준(실험)』은 2017년 『과정표준』으로 개정되었다.

2017년 개정 『普通高中地理课程标准』(이하 개정 지리과정표준)은 2003년의 보통 고급중학교 『지리과정표준(실험)』과 지리교과서(실험판)의 충분한 실험을 거친 『지리과정표준』의 완성판이자, 실험판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수용한 개정판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주요 구성 내용(목록)을 비교하면 표 7과 같다(강창숙, 2021a, 4-5). 과목 편제에서 나타난 큰 변화는 '필수과목(3과목)과 선택과목(7과목)' 구성에서 '필수과목(2과목), 선택성 필수과목(3과목), 선택과목(9과목)'의 3개 과정, 14개 과목으로 확대 편제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2003년과 2017년 『지리과정표준』은 지리학의 오랜 역사적 전통과 종합학문으로서의 전통 및 최근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리과목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무엇보다 중국의 지리교과는 지리학의 연구 분야를 3개 과정별로 적절히 반영하는 동시에, 3개 과정은 지역적 특성과 학습자의 미래 진로 요구에 적합성을 갖춘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www.kci.go.kr

표 7. 보통 고급중학교『지리과정표준』목록 비교

2003년『지리과정표준(실험)』				2017년 개정『지리과정표준』	
제1부분 전언		1. 과정의 성격	⇨	1. 과정 성격과 기본이념	(1) 과정의 성격
		2. 과정의 기본이념			(2) 기본이념
		3. 과정의 설계 방향			
제2부분 과정목표		1. 지식과 기능		2. 학과 핵심소양과 과정목표	(1) 학과 핵심 소양
		2. 과정과 방법			(2) 과정목표
		3. 감정 태도와 가치관			
제3부분 내용표준	필수 과정	1. 지리 1		3. 과정구성	(1) 설계 근거
		2. 지리 2			(2) 구성
		3. 지리 3			(3) 학점과 선택과목
	선택 과정 (選修課程)	선수 1. 우주와 지구		4. 과정내용	(1) 필수과정
		선수 2. 해양지리			(2) 선택성 필수과정
		선수 3. 여행지리			(3) 선택과정
		선수 4. 도농계획		5. 학업의 질	(1) 학업의 질적 내포
		선수 5. 자연재해와 예방			(2) 학업의 질적 수준
		선수 6. 환경보호			(3) 학업의 질적 수준과 시험 평가의 관계
		선수 7. 지리정보기술응용			
제4부분 실시건의		1. 교학 건의		6. 실시건의	(1) 교학 및 평가 건의
		2. 평가 건의			(2) 학업성취도 시험 명제 건의
		3. 교과서 편집 건의			(3) 교재 편찬 건의
		4. 과정자원의 이용과 개발 건의			(4) 지방과 학교의 본 과정 실시 건의
부록		-		부록	부록 1 지리학과 핵심 소양 의미와 표현
					부록 2 지리학과 핵심 소양 수준 구분

가장 큰 특징이고, 이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준다. 이에 중국의 2017년 개정『지리과정표준』에 의거한 과목 구성과 주요 내용을, 우리나라 과목 구성 방향 탐색의 사례로 살펴보았다.

개정『지리과정표준』의 과정별 과목 구성과 과목별 주요 내용은 그림 1, 표 8과 같다. 이들 과정별로 '학점과 선택과목'의 기능과 내용은 다르다. 즉, 필수과정은 고급중학교 모든 학생이 모듈당 2학점(2学分)씩 4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학업성취도 시험의 출제 기준이 된다. 3개 모듈로 구성된 선택성 필수과정은 학생들이 장래 고등교육(대학 진학 등) 학업과 직업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지리 학업 수준별 성적 등급 산출과 대입 전형 성적에의 반영을 위해서 학생들은 선택성 필수 3개 모듈을 모두 이수하여 6학점을 획득해야 한다. 선택과목은 총 9개의 모듈로 구성되었고, 학생들의 흥미나 취향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선택, 이수하는 과정이다(중국 교육부, 2018, 5-7; 강창숙, 2021b, 300).

필수과정의 과목명은 '지리'로 명명하였고, 자연지리 → 인문지리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선택성 필수과정은 자연지리, 지역지리, 주요 인문지리(자원, 환경, 국가 안전)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선택과정은 자연영역, 인문영역, 기술과 실천영역으로 구성되었다. 14개 과목명은 과목의 성격이나 내용 중심으로 명명되었지만, 지리 교과의 특성이나 정체성을 잘 표상하고 있다.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및 기술과 실천영역까지 포괄하는 실용적 내용을 계통적 주제와 당면한 쟁점으로 각 과목의 내용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점이 장점이다. 동시에 중국 각 지역의 특징을 설명하고 학습자가 일상생활 맥락에서 지리적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지역지리가 배제되었다는 점은 단점이다.

일본도 2018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하였으며, 지리역사과는 수위 교과인 국어과 다음의 교과로 편제

www.kci.go.kr

표 8. 중국 지리교과 과목 편성과 주요 내용

과정	과목		주요 내용
필수 과정	지리 1		지구과학의 기초, 자연지리 실천, 자연환경과 인간 활동의 관계
	지리 2		인구, 도시와 농촌, 산업지역 선택, 환경과 발전
선택성 필수 과정	자연지리 기초		지구운동, 자연환경에서 물질운동과 에너지 교환, 자연환경의 정체성과 차별성
	지역발전		지역의 개념과 유형, 지역발전, 지역 균형
	자원, 환경 및 국가 안전		자연자원 개발과 이용, 환경보호, 자원과 환경의 국가 안전에 미치는 중요한 의미
선택 과정	자연 영역	천문학 기초	천체 관측, 태양계와 지월계, 태양과 항성세계, 은하와 우주
		해양지리	해안과 해양, 해양자원 및 개발, 해양재해 및 오염, 해양권익
		자연재해 및 방제	자연재해의 구성요소, 주요 자연재해의 원인, 특성 및 위험, 자연재해의 영역별 차이와 공간분포, 재해방재 대책과 조치
		환경보호	환경문제와 환경과정, 물환경, 대기환경, 토양환경
	인문 영역	관광지리	관광자원과 공간분포, 관광산업 활동과 공간분포, 관광자원과 관광지 보호
		도농계획	도시와 향촌, 도시화, 도시와 농촌의 배치와 계획
		정치지리	국가의 영토관념, 종합국력, 세계 정치지리적 구조
	기술과 실천 영역	지리정보기술 응용	지리정보시스템(GIS), 원격탐지(RS),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통합(GNSS), 디지털 생존
		지리 야외실습	답사 도구의 응용, 야외 관찰, 발견 및 감상, 야외 지리정보 획득 및 샘플 채취, 답사 보고서 작성 및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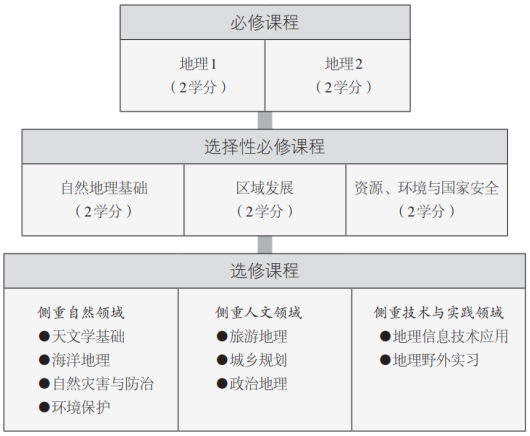


그림 1. 개정『지리과정표준』의 '과정내용' 구성체계

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통 교과에 해당하는 지리역사과에서 공통으로 이수하는 과목은 5개이고, 이들 과목 중에서 '지리총합'과 '역사총합'은 필수 이수로 편제하였다(문부과학성, 2018, 33-78; 표 9).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중국, 일본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한자문화권'을 형성해 왔으며 '동아시아 공동체'로 미래를 모색해야 하는 관계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표 9. 일본 고등학교 교과별 공통 과목 일부

교과	과목(단위)
1. 國語	・現代の国語(2), 言語文化(2), 論理国語(4), 文学国語(4), 国語表現(4), 古典探究(4).
2. 地理歷史	・地理総合(2), 地理探究(3) ・歷史総合(2), 日本史探究(3), 世界史探究(3).
3. 公民	・公共(2), 倫理(2), 政治・経済(2).
4. 數學 5. 理科 … 11. 理數	내용 생략

이후 이들 삼국 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매우 활발해졌고,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관계가 되었다. 삼국의 고등학생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일상에서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으로 협력하고 경쟁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리는 선택과목이다. 고등학생들은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학생들의 지리적 지식과 세계적 인식은 '지리적 문맹(Geographic illiteracy)'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학생들이 중국과 일본의 미래 세대와 무엇을 어떻게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강창숙, 2021a, 12).

www.kci.go.kr

V. 정리 및 결론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 편제는 광복 후부터 국가 수준의 외재적 편제에 종속되고 있지만, 지리교과를 내재적으로 정당화하고 정체성을 표상할 수 있는 과목 편제에 대한 지리교육학적 논의는 매우 부진했다. 지리교육과정의 역사적 경험을 통한 내재적 실재와 지리학의 연구 분야를 고려한 과목 편제에 대한 논의는 지리교육의 기본적인 주제로 평상시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여행지리' 사례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로운 탐색이나 용감한 방안 모색이 활성화되어야 수시 개정되는 국가 교육과정을 대비할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소수 그룹의 한시적인 정책과제 수행만으로 지리교육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교수요목기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사회과 편제의 변천 양상을 살펴보면, 5차까지는 필수와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고, 영역별 과목도 대체로 균형을 이루었다. 6차 시기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선택 교육과정을 표방했지만, 필수과목을 편성해 왔다. 7차 시기부터 필수 혹은 기본과목으로 이수되어야 할 지리 과목은 심화 선택, 선택, 일반 선택 등의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다. 게다가 국가 교육과정에서 전문 교과의 과목을 보통 교과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 시작했으며, 국제계열의 일부 전문 교과군은 보통 교과 사회과의 선택과목으로 편제되거나 대체, 이수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과의 교과 편제나 이수 구분은 과목의 성격이나 내용체계 특성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시기별로 편의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영역에서는 시기별로 과목과 과목명 구성을 달리하는 변화를 도모하였지만, 지리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로 계속되었다. 앞으로 전문계 고등학교는 물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교과와 과목 편제가 확대되는 등 교과의 설정 주체 및 유형도 다원화될 것이며, 이수 구분의 경계도 없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고등학교 지리과 교육과정과 과목 구성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과목 구성의 내재적 논리를 기본 입장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경 학문인 지리학의 논리적 구조와 연구 분야를 바탕으로 한 학문적 지식기반 교육과정에 기반한 과목 구성을 제안한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일반적인 논의는 지식형식론과 '자유교과'에 대한 것이다. 학교 교육이 시작된 이래, 자유교과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언제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오늘날 아리스토텔레스, 허친스, 허스트로 이어져 온 자유교과관이 갖는 한계와 대안적 관점은 '실재'를 정당화의 근거로 해석하며, 지식의 형식을 실재의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이해한다(김종건·임병덕, 1998). 즉, 자유교과를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로서의 공적 전통은 그 자체가 시간 계열 속에 나타난 실재로서, 자유교육을 실재를 향한 여정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지식 자체의 본질과 의의를 강조하는 실재론적 인식론(혹은 교육적 실재론)으로 전개되고 있다(김종건·임병덕, 1998; 손종현, 2016, 199).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주된 과제는 교과의 내용 지식 선정과 조직 및 학습자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7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의 내용체계는 '성취기준'으로 진술되고 있다. 교과 지식과 학습자 발달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지만, 최근 교과 교육과정의 핵심은 교과의 내용 지식이며, 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기능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학교 지리가 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의 이론적 기반은 사회적 실재론자 Young(2008, 13-18)의 '강력한 지식(powerful knowledge)'론에서 찾을 수 있다. '강력한 지식'은 학교에서 교과 학습으로 획득하는 지식이며, 일상적 지식과 구분되면서 연계되는 지식으로 사회적,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지식이다(조철기, 2014 참조). 이를 기반으로, 학교 교육에서 지리 교육과정은 질 높은 지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강력한 학문적 지식(powerful disciplinary knowledge, PDK)에 근거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사회적 실재론에 기초한 PDK는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products)와 동시에 어떻게 배울지(processes)에 주의를 기울인다(Young *et al.*, 2014; Kim *et al.*, 2020). 이처럼 사회적 실재론은 대안적 지식기반 교육과정과 교과 기반 교육과정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

www.kci.go.kr

리과 과목 구성 논의의 실제적 배경이 된다.

전통적으로 지식 자체의 본질을 강조해 온 교육적 실재론과 보다 진보적인 관점에서 '강력한 학문적 지식론'을 강조하는 사회적 실재론을 배경으로 학문적 지식기반 지리과 과목 구성 방향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학교 지리 과목의 구성 방향은 일반계 '보통 교과'는 물론 전문계 '전문 교과'를 포괄하는 범위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과목 구성과 내용체계는 지리교육의 본질적이고 내재적 특성에 기반한 체계와 위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정의 역사 및 교과 편제의 경험을 고려하면 '한국지리'는 고등학교 지리과목을 대표하는 필수 혹은 기본과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실존 공간이자 미래 삶터인 국토에 대한 '한국지리' 학습은 필수 혹은 기본과목으로 이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지리는 국가 수준의 과목 편제 구분과 상관없이 글로컬 관점을 견지하는 필수과목으로 내용체계를 구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사례처럼 종합학문인 지리학의 연구 영역(자연지리, 인문지리, 지리정보기술과 실천)을 고려한 과목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일시적인 쟁점이나 현상을 과목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한다면 인접 교과나 과목과의 중첩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른 '통합'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지리학의 강력한 학문적 지식을 교과 내용으로 구성할 때 뿌리 깊은 교과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교 지리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명시되는 교과나 과목은 배경 학문을 바탕으로 한 '지식교과'를 넘어, 학교와 학습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교과나 과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리과는 배경 학문을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융합적인 과목 구성에도 매우 적합하다. 이에 과목 구성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에 갇혀서 인문지리 중심의 계통지리로 접근되고, 소극적으로 설명되는 지리에서 벗어나 매우 적극적이고 실재적인 내용 지식을 담아내는 선택과목 구성 방향을 전향적이고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고등학교 편제를 고려한 3개 이수 과정을 전제로 시론적 과목 구성(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필수과목: 한국지리
- 선택과목 1: 아시아의 지리와 세계의 지리, 혹은 동아시아의 지리와 서유럽의 지리
- 선택과목 2: 여행지리, 세계의 자원과 경제활동, 도시발전과 인구문제, 지구촌 갈등과 협력의 지리, 지역발전과 환경문제, 지역문제와 지역조사, 지도와 지리정보기술, 해양지리 등.

위와 같은 과목 구성(안)은 배경학문인 지리학의 연구영역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1로 제안한 3개 과목은 고등학교 지리과의 기본 혹은 필수과목으로 이수되는 '지식 교과' 성격을 갖는 과목이다. 이에 비해 선택과목 2에 제시된 8개 과목은 보통 교과는 물론 전문 교과 등에서 학생들의 흥미나 요구, 국가·사회적 쟁점,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다양한 층위의 일상적, 사회적 요구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실용적 성격을 갖는 과목이다.

고등학교 지리과 교육과정과 과목 구성의 내재적 논리와 방향 탐색은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고, 상시 논의가 필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과목 구성 방향과 구성(안)은 매우 시론적이고 논리적 설명이 부족한 한계가 있지만, 좀 더 자유로운 논의가 전개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주

1) 2015 개정 교육과정 '단위 배당 기준'에서는 고등학교를 가) 일반고등학교(자율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외)와 나)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가) 일반계와 나) 전문계 고등학교로 통칭, 기술한다(교육부, 2015a, 15-16).

2) 교육부는 '모든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과서 개발 및 활용'을 목표로, 초등 국정도서의 검정도서로의 일부 전환 등 교과서 발행체제를 개선하고, 검정 심사 제도의 규제 완화 등 검정도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을 실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장 개설과목 및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교과 운영을 통해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는 자유발행제 도입과 추진 등 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교과서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8, 2-7).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교육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준을 갖

www.kci.go.kr

추면 출판사가 인정도서의 일부를 자유롭게 교과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해 학교와 교사의 교과서 사용결정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3) 최근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정책연구에서는 2009 개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유지된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 등 4개 구성된 교과(군)의 '영역'은 지나친 주지 교과 및 대입 시험 대비 교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정도의 역할을 했음을 밝히고 있다. 즉, 교육과정 총론에서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중등학교 과목(필수와 선택)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체임에도 불구하고 설정 논리도 부족한 '영역'이나 무의미한 '공통 과목' 등은 문제가 있기에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129).

4) 본래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시안은 '교과 이기주의' 배제를 명목으로 각 교과 전문가를 제외하고,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라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집단에 의해 진행되었다. 본래의 개정 시안은 고등학생들의 이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국토지리'를 선택과목으로 편제하고 '현대 사회와 시민'이라는 새 과목 설치를 계획하였다(권혁재, 1991, 253). 이에 범 지리학계의 노력으로 '현대 사회와 시민'을 해체하고 일반사회와 한국지리로 구성된 '공통사회'가 필수과목으로 편제되었다.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시민성 함양을 위해 '민주시민'을 필수교과로 개설해야 한다는 일부 단체의 의견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을 100대 국정과제로 설정했고, 2018년 1월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했으며, 11월에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에는 '학교 민주시민과목 추진연대'가 발족하였고, '2020 온라인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민주시민 과목 개설의 필요성과 개설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민주시민(민주주의자)을 길러내는 것은 모든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겨레 온, 2020년 10월 18일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광복 후 미군정청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공민과를 도입하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사회생활과를 신설하였고, 사회과는 민주시민 양성을 교과 목표로 실천해 왔다.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은 민주시민 양성을 '추구하는 인간상' 등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지향해 왔다.

5) 2013년 12월 18일에는 '논술'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교육부 고시, 제2013-7호)이 이루어졌다. 즉, 교육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2012.12.1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별책 1)'의 총론 일부를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이때 교양 교과에 '논술'을 추가하였고, 부칙에서는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에 관한 교과로 한다."는 것을 뒤늦게 명시하는 고시문이었다.

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2012.7.9.)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의 총론,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고, 한국어 교육과정 신설을 고시하면서 사회과 시행 시기를 2014년으로 수정, 고시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부 개정 내용은 직전 고시문에서 누락된 '실용 경제'가 보완된 것 이외에는 뚜렷하게 변화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의거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2013년 8월 30일 검정되었고, 2014년 3월 1일 초판이 발행, 시행되었다. 심화 선택과목도 '과제연구'를 제외한 10종이 인정도서로 발행되었다(강창숙, 2020, 14).

7) 학생들의 초·중·고 교육 주기를 고려하면 최소한 12년간 교육과정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졸속 교육과정 개정이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정치권과 교육계의 갑론을박과 연구개발 등을 거쳐 정권 말기에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폐해가 계속되는 것이다(한겨레, 2015. 3. 16.). 문재인 정권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 출범, 2022년 5월 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교육 당국은 2022년 5월 임기 만료인 정권의 정책 집행을 위해, 2015 교육과정의 문제나 쟁점을 도출하는 정책과제와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정책과제를 2021년에 동시적으로 집중 전개하였다(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팀, 202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등).

참고문헌

강창숙, 2021a, "중국의 2017년 개정 고급중학교 『지리과정표준』의 주요 내용과 특징", 사회과교육연구, 28(3), 1-13.

강창숙, 2021b, 지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탐구, 충북대학교 출판부.

교육과학기술부, 201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교육과학기술부, 2011,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4).

교육과학기술부, 2012, 고등학교 교육과정(I)(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호, 별책 4).

교육부, 1997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1).

교육부, 1997b, 고등학교 교육과정(I), (II)(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4).

교육부, 1997c, 국제계열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28).

교육부, 2015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교육부, 2015b, 국제 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24).

교육부, 2018, 교과용 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안).

교육부, 2021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41호, 시행 2021. 3. 23.).

www.kci.go.kr

교육부, 2021b,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교육과정정책과(2021. 11. 24.)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국제계열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8).

권혁재, 1991, "국토지리: 왜 배워야하나", 대한지리학회지, 26(3), 253-258.

김대훈, 2018, "국제계열 교육과정에서 「지역이해」 과목의 위상과 정체성 혼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4), 591-603.

김정호·김왕근·성일제·이근님·이혁규·조도근·최석진·노희방·최병모, 1997, 제7차 국제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CR 97-30).

김종건·임병덕, 1998, "자유교과의 교육과정적 지위", 교육과정연구, 16(2), 51-76.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팀, 2021, 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공청회 자료집.

손종현, 2016, "Hirst의 지식형식론과 자유교육", 한국교육철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 147-203.

안종욱, 2012, "고등학교 경제지리 과목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3), 33-48.

정문성·류택형·전종명·이욱진·강은희·최경식, 2014, 고등학교 지역이해(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정문성·전영은·성정원·이욱진·최유리, 2018, 고등학교 지역이해(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조철기, 2014, "영국 국가 지리교육과정 개정과 지식 논쟁", 대한지리학회지, 49(3), 456-47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고등학교 사회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및 대입제도 개편 방향(연구보고 CRC 2021-3).

文部科學省, 2018, 高等学校 学習指導要領(平成30年告示).

中華人民共和國 教育部, 2003, 普通高中地理课程标准(实验), 北京师范大学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2018, 普通高中地理課程標準(2017年版), 人民教育出版社.

Kim, H., Yamamoto, R., Ito, N., and Shimura, T., 2020, Development of the GeoCapabilities project in Japan: furthering international debate on the GeoCapabilities approach, *International Research in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Education*, 29(3), 244-259.

Young, M., 2008, From Constructivism to Realism in the Sociology of the Curriculum,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 32(1), 1-28.

Young, M., Lambert, D., Roberts C., and Roberts, M., 2014, *Knowledge and the Future school: Curriculum and Social justice*, London: Bloomsbury Academ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21.8.15., http://ncic.re.kr.

한겨레, 2015. 3. 16., "교육과정 너무 자주 바뀌어…최소 5년 이상 건드리지 말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82547.html.

한겨레 온, 2020.10.18., '민주시민' 교과를 의무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54.

접 수 일 : 2022. 01. 12
수 정 일 : 2022. 02. 14
게재확정일 : 2022. 02. 15

교신: 강창숙,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gaia2004@cbnu.ac.kr, 043-261-2695)
Correspondence: Chang-Sook Kang, gaia2004@cbnu.ac.kr

www.kci.go.kr